

**통우컴즈**

장수의 비결

강반석 목사님의 환송예배를 위해 양주교회에서 뵈 권천국 목사님은 여전히 건강하셨습니다. 아흔이 넘는 연세인데도 지금도 일선에서 일하고 계신다. 그분은 장수와 건강의 비결을 나와 그곳에 함께한 장로들에게 말씀해주셨다. 나는 그것을 노트하며 들었다. 그분의 장수비법이다.

장수비법의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것이다. 잠언 9장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네 날이 많아질 것이요 네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잠9:10~11)고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장수할 수 있다. 세상도 ‘인명(人命)’은 재천(在天)’이라고 하지 않던가.

둘째, 기도해야 장수한다. 기도해야 영이 바로 서고, 영이 바로 서야 만사가 잘 되고, 건강도 온다고 성경은 말씀하셨다(요삼1:2).

셋째, 소식(小食)해야 한다. 권 목사님은 뷔페식당에 가서 한 번 이상을 가져온 적이 없으시란다. 사실 그렇다. 조선의 임금들은 대개 단명했지만, 영조는 소식하여 83세까지 살았다.

넷째,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한다. 과욕, 과식, 과로, 과속... 다 욕심이다. 성경은 공수래공수거(空手來空手去)를 말씀하신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 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딤후 6:7~8). 지족하는 마음이 장수의 비결이다.

다섯째, 운동도 알맞게 해야 한다. 과다한 운동은 오히려 해가 된다. 활성산소가 더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이고, 무리는 곧 자살이기 때문이다. 매일 런닝머신을 타는 권 목사님처럼 자신에게 알맞은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다.

여섯째,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한다. 억지 추
향은 속병의 원인이다. 좋아하는 일을 해
야 기쁨이 온다. 나나 권 목사님이나 주의
일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신난다. 그러니
피곤한 줄 모른다.

권천국 목사님이 일러주신 장수와 건강 비법을 실천해보자. 그래서 무병미락장수하여 더 많이 주의 일을 하자.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는 전도서 7장 1절의 말씀이 더욱 절실하게 느껴진 하루였다. 무려 11년 만에 이루어진 교단의 임직예배를 통해 모두 1,621명이 장로, 권사, 피택장로, 안수집사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임직되었다. 검은색 정장과 고운 한복으로 단정히 자리 잡은 교단 임직자들로 임직예배가 거행된 KBS스포츠월드 아레나홀은 아름다운 장관을 연출했고,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기네스북감이라며 감탄을 연발했다.

목사님은 임직예배를 통해 모든 임직자들이
이 맡은 일에 충성하는 교단의 기둥이 되

다. 왜냐? 이 교회는 나에게 맡겼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나에게 맡기신 양떼를 예수님을 대신하여 처리하는 것은 나의 고유 권한이요, 그에 따라 일꾼을 세우는 일 또한 나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부탁하건대 제발 남의 일에 참견 말고 여러분 각자에 맡겨진 일에만 충실하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요한의 앞날을 궁금해하는 베드로에게, 내가 어떻게 하든 상관 말고 네 일이나 잘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삽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

그 사람의 자격을 판단하고 직분을 맡기는 일은 목사가 예수님을 대신하여 시행하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판단합니까?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기 바랍니다.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직분을 얼마나 잘 수행하였느냐가 그날에 받을 상과 직결됩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 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마16:27).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대로 갚아 주리라'(계22:12).



2023 예수중심교단 임직예배(4월 12일, KBS스포츠월드 아레나홀)

어줄 것을 당부하셨다.

나는 오늘이 임직예배를 위해 오전에 4시간 넘게 쭉그려 앉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이름으로 직함을 받은 여러분들이 그이름에 합당한 역할을 감당하여 모두가 주 앞에 서는 그날 칭찬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임직에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느냐, 왜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을 임직하려고 하느냐, 이런 저런 말들이 있었던 모양이지만, 나는 단호히 말합니다. 이는 세상이 주는 단기 명예직이 아니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는 영존직이기에 조금도 허투루 할 수 없고, 수많은 날을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교단의 장으로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임명하는 것인니

찌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나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요21:21~22).

교회의 직분은 권력이 아닙니다. 어깨싸움이나 하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의 직분에 무슨 서열이 있거나 힘의 경중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질서를 위해 구분하는 것일 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직분이든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해 교회를 튼튼하게 가꿔가는 것입니다. 낮아져 섬기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격려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직무를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가대원 성가대, 안내위원이면 안내위원, 각 교육부서 등 교회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남의 일에 감내라 대추 내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남의 일에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죽음 뒤에 반드시 있을 심판의 시간에 여러분 각자가 행한 일에 대해 보상하시겠다는 주의 말씀을 명심하시고, 오늘 임직을 받는 여러분들 모두가 그날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 일하는 장로, 권사, 피택장로, 안수집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랜 시간 사모하며 받은 값진 하나님의
직분이다. 5년 임기의 대통령이 준 써어질
세상 지위가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
리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
도가 주신 영광의 직분이다. 그에 합당한
충성으로 모두가 주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아름다운 직분자들이 되자.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

한은택 목사

주일은사집회

매주일 오후 3시 (KBS스포츠월드)

문의 02. 533. 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고전12:12~28)



죽음 뒤에 받을 면류관을 보고 일하라

참 생각이 많은 시간이었습니다. 11년 만에 1,621명에게 임직을 했고, 며칠 사이로 사랑하는 강반석 목사님이 소천하셨기 때문입니다.

참 짧은 인생입니다. 또 언제 부름을 받을지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준비해야 합니다. 언제 부르시더라도 당당히 주님 앞에 서고,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 한 번 죽는 것이 바꿀 수 없는 이치이듯, 그 후에 심판이 있는 것도 피할 수 없는 이치이니까요(히9:27).

저는 강반석 목사님이 주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그분은 분명히 “저는 열심히 이초석 목사님을 도왔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분명히 ‘착하고 충성된 자’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날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고, 그날을 준비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번에 직분을 받으신 분들에게 제가 감사와 축하보다는 직분자의 의무와 자세만을 강조한 것은 바로 그래서입니다. 주님은 많이 준 자에게 많이 달라고 하셨거든요. 장로가 되었다고 어깨에 힘이나 주고, 권사가 되었다고 완장 찬 것처럼 여기저기 휘두르다 주님 앞에 가면 큰일 나기에 미리 미리 당부드린 것입니다.

미래 가치 있는 곳에 아낌없이 투자하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엡4:11~12). 이것이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입니다.

이번 임직예배 때 원로장로 대표로 임명장을 받은 문덕장 장로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여든이 넘는 연세이지만, 그분은 지금도 교구버스를 운행하며 성도들을 섬기고 계십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또 한 분, 국내에서 열 손가락 안에 손꼽히는 건설 회사를 운영하는 어느 장로님도 주일이면 버스를 직접 운행하며 성도들을 집에서 교회로, 교회에서 집으로 모십니다. 그분은 “그게 그렇게 좋을 수 없습니다. 토요일 저녁이면 가슴이 뻘뻘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분이 진짜 직분자입니다.

직함(職銜)은 직책 직(職)에 재갈 함(銜)을 씁니다. 직함을 받았다는 것은, 말(馬)이 일할 때 재갈로 입을 닫는 것처럼, 입은 다물고 귀(耳)만 열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직분을 받은 자는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나라가, 기업이, 교회가, 가정이 잘 가는 방법이 뭘지 아십니까? 각자가 자기 일을 묵묵히 해내는 것입니다. 제가 해외 선교를 성공적으로 이뤄내는 것은 선교팀 각자가 자기의 일을 잘 해내기 때문입니다. 사진 찍는 사람은 사진 찍고, 비디오 잡는 사람은 비디오 열심히 잡고, 통역하는 사람은 통역하고, 반주하는 사람은 반주하기 때문에 집회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들이 서로 잘났다 하는 것을 본 적이 없고,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총회장 이초석 목사

만
해
넙
니다.

오케스트라

를 생각해보세

요. 아름다운 화음이

나는 것은 각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악보에 최선을 다하기 때문입니다. 바이올리니스트가 첼리스트에게 간섭하지 않습니다. 또 심벌즈는 몇 번 밖에 안 치기 때문에 바이올린보다 못하다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기 것만 연주합니다. 서로 다투거나 서로 참견하다 자기 연주할 타이밍을 놓치면 그날 연주는 망치기 때문입니다. 간섭하는 자는 오직 지휘자 한 사람입니다. 그가 하라는 대로 각자 그것만 하면 됩니다.

혹자는 어떤 직분은 귀한 거고, 어떤 것은 그보다 못한 거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장로요, 권사요, 집사를 둔 것이지, 이는 계급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직분의 의미를 몸의 각 지체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찌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끌데 없다 하거나 또한 머

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끌데 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고전12:14~21). 눈이 아프면 온몸이 아프고, 발이 아파도 온몸이 아픕니다.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들은 귀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눈만 귀한 것도 아닙니다. 며칠 화장실 못 가면 정말 죽을 맛입니다. 귀하지 않은 지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각 지체가 기능을 제대로 해줄 때 건강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내가 잘났다. 내 직분이 높다’ 하면 교회가 몸살을 합니다. 우리는 그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을 받들어 각자의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각자에

게 맞는 직분이 있을 뿐

이지, 경중(輕重)

은 없습니다.

로 마 서

12장

말

씀

입

니

다. “우

리에게 주

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

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롬12:6~8). 네 일만 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누구는 받을 자격이 없는 데 왜 주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직분을 주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주는 것이지만, 주고 안 주고의 권한은 제게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저 역시 주의 종이 될 수 없었습니다. 재산을 다 허비하고 집에 돌아온 둘째 아들이 첫째 아들보다 더 효자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임직식에 나가기 전에 저는 임직되는 모든 자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몇 시간 기도했습니다. 계곡 없는 산이 어디 있습니까? 죄 없는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으면 됩니다. 강대상을 만들 때 대패도 필요하고, 못도 필요하고,

아교도 필요하듯 못 같은 사람도, 남을 늘 깎는 대패 같은 사람도 다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악한 자도 쓸 날이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부디 남을 정죄하지 말고 자기 일이나 열심히 합시다.

디모데전서 3장에는 직분자의 자세에 대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찌며”(딤후3:2~4).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장로요, 권사요, 안수집사요인 사람이 쌍욕을 막하고, 음담패설이나 하고, 말만 하면 거짓말이나 하고, 행동은 거칠면 되겠습니까? 그들이 교회의 기둥일진대, 기둥이 썩고 있으면 그 교회의 앞날은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6장에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모든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중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집사 일곱을 택해 기도하고 임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로 인해 제자의 수가 날로 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행6:7). 맞습니다. 나무의 성장은 잔뿌리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의 잔뿌리인 직분자들에게 교회의 장래가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마음과 자세여야 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예수 이름을

오늘의 계란보다 내일의 암탉을 바라보라

으로 받은 직분을 귀히 여기세요. 장관직을 받은 어느 집사는 장관임명장 위에 집사 임명장을 놓았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준 것보다 주님이 주신 직분이 더욱 귀함을 안 것입니다. ‘그깟 집사?’ 하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깟’ 하실 것입니다. 새벽부터 길에서 안내를 서는 안내위원들, 성가대, 헌금위원들, 교사들... 여러 분들이 있기에 교회가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구석구석에서 애쓰고 힘쓰는 직분자들이 있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교회는 저 혼자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 직분자들이 연합하기에 가능합니다.

부디 가이오 장로, 스테반이나 빌립 집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멋진 직분자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그날에 저는 여러분을, 여러분은 저를 주님 앞에서 자랑합니다.

“말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고전4:2). 할렐루야!

:: 객원컬럼 ::

나귀가 되자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 새끼를 타셨다. 그곳에는 힘이 좋고 경험이 많고 잘 길들여진 어미 나귀도 같이 있었으나 주님은 그것을 택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훈련되지도 않았고 다듬어지지지도 않은, 보잘것없는 새끼 나귀를 택하셔서 자격을 주어 쓰셨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고전1:26)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고전1:29)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한결 같이 겸손하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주의 일을 할 때, 겉으로는 ‘예, 예’하면서 순종하는 듯해도 속에는 여전히 성질이 남아있고, 혈기가 남아있고, 교만이 남아있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된다. 그러나 신앙이 점점 성장하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 그럴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사용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고마워서 더욱 겸손해진다.

하나님께서서는 사람들이 볼 때 자격이 없고 약점투성이인 자를 쓰신다고 하셨다(고전1:27~28). 육체로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을 택하사 친히 자격을 주어서 쓰신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훌륭하게 길들여진 어미 나귀를 놓아두고 새끼 나귀를 가져다가 쓰는 것에 대하여 왈가왈부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자격을 주어 쓰시겠다

하는데 누가 감히 비판할 수 있겠는가? 주님은 우리가 잘 다듬어져서, 자격이 충분하여 목사로 또는 집사로 쓰시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다듬어지지 않은 우리들에게 자격을 주어 사용하시는 것이다. 참으로 겸손한 사람은 ‘나는 새끼 나귀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자격을 주셔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타고 가시던 새끼 나귀같이 겸손히 주님을 모시고 가야 한다.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오직 주님을 태운 나귀라는 사실만 명심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묵묵히 따라가야 한다.

그런데 만일 이 나귀가 자기 앞길에 사람들이 걸을 곳을 피우고, 나뭇가지를 피우고, 계다가 호산나 찬송까지 한다고 하여, 그것이 자기를 위한 것으로 착각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자기 등에 타고 계신 주님을 망각한 채 교만해진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나귀는 오직 겸손히 주님만을 의식해야 한다. 그분의 인도대로 갈 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공생애를 사신 것과 똑같이 우리도 각각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성도의 공생애를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벧전 5:5).

“교단 임직을 축하드립니다!”

신기류 목사
abba7777@naver.com

:: 성경에세이 ::

일어나 빛을 발하자!

여보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네(마5:14).
자네는 지금 빛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 자네로 인하여 세상이 밝아졌는가? 사랑이 넘치고 용서의 강물이 흐르고, 그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는가? 사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만들 수도, 빛을 비출 수도 없지. 우린 발광체가 아니야. 그럼에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이 되라고 하심은,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가 되라는 말씀이야. 거울을 햇빛을 향해 두면 엄청난 빛이 반사되어 눈이 부실 정도로 밝고, 엄청난 에너지가 생성되는 원리와 같은 거지.

그런데 아무리 큰 거울이라고 해도 두꺼운 커튼을 쳐놓으면 해를 반사시킬 수 없지. 우리의 지식이나 지혜, 내 생각과 이론, 세상에 대한 미련, 그리고 안일한 신앙 자세는 예수님의 빛을 차단하는 두꺼운 커튼과 같다네. 그 커튼을 열어젖혀야 빛이 들어와 반사체가 될 수 있네.

여보게!
빛이 되기 위해서는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향해야 하네. 거울이 태양

을 향해야 하듯 세상으로 눈 돌리지 말고,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예수님의 반사체가 될 수 있네.

세상은 갈수록 어두워갈 것일세. 그런 곳에 빛이 되려면 내가 먼저 빛을 받아들어야 하네. 내가 먼저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고, 내가 먼저 예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야 하고, 내가 먼저 그분에게 절대적인 충성과 순종의 삶을 살아서 빛 가운데 거해야 내가 빛이 되어 세상을 비출 수 있다네.

코로나로 인해 마귀가 제 세상 만난 듯한 영적 암흑기를 지냈지. 그래서 이제는 영적 개혁이 일어나야 하네. 이제 나태해진 신앙을 잘라버리고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되어야 하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쫓겨나거든. 그러니 우리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세.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네 빛으로, 열왕은 비취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사60:1~3).

봉우

내 사랑 목화 꽃

당신의 얼굴은 호수 위에 백조였죠
만민이 우러러볼 수 있게 세상을 비추셨죠
어둔 밤에 달빛으로
글썩길엔 가로등으로
나그네에겐 손전등으로
어둔 밤엔 호롱불로
외롭고 고달픈 심령엔 사랑의 불꽃이었죠

당신의 얼굴은 망망대해에 등대였죠
거센 폭풍 속 헤매는 인생을 비추는
밝고 웃음 짓는 얼굴이었죠

당신이 무척이나 그림습니다

강반석 목사를 생각하며
朋友

:: 생명의 말씀 ::

천국의 소망이 있는 자

믿지 않는 자들이 죽으면 사망(死亡)했다고 하는데, 한자의 뜻은 ‘죽을 사, 망할 망’ 자를 사용한다. ‘죽어서 망하게 되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믿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마감한 자는 소천(召天)하셨다고 한다. ‘부를 소, 하늘 천’ 자를 사용하여 ‘하늘에서 불러서 하늘로 돌아갔다’는 뜻이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 새롭게 시작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생복락의 천국으로 가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로 가게 된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기뻐하는 자가 있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자가 있는 것이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룬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살전4:13).

어느 나라, 어떤 부모님 가정에 태어나는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지만 죽은 뒤에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는 내가 선택할 수가 있다.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오늘 믿고 내일 죽어도 천국에 갈 수가 있다. “그렇게 쉽고 간단할 수가 있냐?”고요? 사랑의 하나님께

서는 모든 자들이 천국에 올 수 있도록 가장 쉬운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계보 린이란 진통제가 있다. 그 약에는 어떤 성분이 들어 있고, 먹었을 때 어떤 화학 작용을 하여 두통 치통 생리통 등이 사라지는지 알고 먹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이 약을 먹으면 두통이 없어진다는 상식 하나로 먹으니 두통이 사라진다. 성경을 다 모른다 해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다.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살 수 없다고 해서 일생(一生)이라고 하는데, 엄격하게 구분하면 삼생(三生)이라고 해야 한다.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이 땅에 태어나서 길면 100년, 그리고 죽은 뒤에 영원한 세상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있는 줄 몰랐듯, 죽은 뒤에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에 이 땅의 삶을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이다. 어머니 뱃속에서 이 땅의 삶을 준비하는 것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원한 세상을 준비해야 한다. 다른 조건은 없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할렐루야!!

임택함 목사

강반석 목사 천국환송예배



“목사님, 후임자 좀 보내주세요. 이제 좀 쉬고 싶습니다.”
양주예수중심교회 강반석 목사님이 보름 전 총회장 목사님께 드린 마지막 부탁이다. 그리고 2023년 4월 16일, 강반석 목사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평생을 깨끗하게 사신 목사님은 마지막도 깨끗하게 정리, 인수인계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셨다. 그분은 사도 바울처럼 떠날 날을 알고 있던 복 있는 분이셨다. 아내인 권은희 전도사에게 “여보, 찬송 좀 불러줘.”라고 말하고는 찬송 속에 천국에 입성하셨다. 이보다 아름다운 죽음이 어디 있으랴.
양주예수중심교회에서 열린 천국환송예배는 교단장으로 진행되었고, 총회장 목사님께서서는 강반석 목사님에 대해 이렇게

회상하셨다.
“참 깨끗한 종이였습니다. 목회 38년 동안 이만한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큰 자가 되려고 애쓰지 않았고, 그저 깨끗하게, 정직하게 살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평생 ‘아니요’가 없었습니다. 큰 교회 담임을 하다가 작고 문제가 있는 교회로 발령을 내도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아멘’ 했습니다. 그분은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었지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나에게 물어보는 참 겸손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내 제자이기도 했지만, 내 든든한 동지였습니다. 그래서 노년은 기도원에서 벗 삼아 함께 지내고픈 바람이 있었습니 다만, 하나님은 그분에게 더 좋은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분을 앞세

운 마음이야 헛헛하지만, 이제 모든 수고를 내려놓고 주님 곁에서 영원한 쉼을 얻은 그분을 기쁜 마음으로 보내드립니다. 나는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강반석 목사, 잘 좀 해주세요!’라고요.”
강반석 목사님의 외동아들인 강병수 집사가 “아버지가 어떤 삶을 사셨는지 오늘 알았습니다. 왜 그렇게 사셨는지도 오늘 알았습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평생을 가족과 떨어져 주의 일에만 전념했다. 강 목사님의 아내인 권은희 전도사는 같은 주의 종으로 배려와 이해가 가능했지만,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곁에 두지 못했던 아들은 그런 아버지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으리라.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행하신 아버지를 헤아릴 수 없었으리라.
총회장 목사님은 권은희 전도사에게 “우리는 맘 놓고 울 수 없다. 그날을 소망을 전하는 자들이 울어야 하겠나?”라고 하셨다. 맞다. 우리가 이별을 마냥 슬퍼할 필요가 없음이, 우리가 죽음 앞에서 웃을 수 있음이 바로 여기에 있다. 총회장 목사님은 천국의 소망에 대해 이어 설교하셨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형제들이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살전4:13)고 말했습니다. 천국이 없다면, 그날이 없다면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이고, 강반석 목사님도 불쌍한 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이 있기에 우리는 눈물을 닦고 환송할 수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주를 위해 좁은 길을 간 자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나면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행

한 대로 보상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나 죽습니다. 또 누구나 죽고 난 후에는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때 주님 앞에 무엇을 내놓을 겁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가장 두려운 말이 무엇인지 압니까? ‘나는 도무지 너를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왕 주를 위해 살았으니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이 강반석 목사님의 믿음을 본받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전하는 이 말이 강반석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하고픈 유언일 것이고, 성령님의 당부일 겁니다. 우리, 후회 없는 삶을 살다 면류관을 받으시다. 주를 위해 충성해봅시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천국을 생각하세요. 그날에 받을 면류관을 생각하세요. 지금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그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도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강반석 목사님처럼 사도의 길을 함께 가고, 함께 상을 받으시다.”
환송예배 화면에 비친 강반석 목사님의 미소가 참으로 아름답고 평안해보였다. 주님 앞에서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즐겁도다’ 찬송하시는 강반석 목사님의 모습이 눈에 보듯 선하다.
강반석 목사님, 그분은 천국에 소망을 둔 자의 본을 보이신 멋진 분이셨다. 태산이 바람에 요동하지 않은 것처럼,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몸소 보이셨다. 우리도 그 분을 본받아 후회 한 점 남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믿음의 경주를 하자.
‘목사님, 이제 주 안에서 편히 쉬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신묘수 전도사

춘계산상집회

5월 1일(월)~4일(목)
장성 예수중심기도원, 문의: 02-533-9191

:: 빛이 되리라 ::

내 삶의 기준

얼마 전 담임목사님께서 후회하지 않을 인생의 기준을 정하라고 말씀해주셨다. 그래야 인생의 최후 목표 지점에 흔들림 없이 잘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말씀을 듣고 내 삶에는 어떤 기준이 있을까 돌이켜 보았고 그중에 가장 잘했다 싶었던 것 하나가 생각났다. 그것은 바로 기도원 집회가 있을 때마다 꼭 참석하는 것이었다. 거기서도 더 잘했다 싶은 게 하나 있었다. 하루 이틀 참석하는 것이 아닌 최대한 집회 시작부터 끝까지 있

다 올라오는 것이다.
먹어본 자가 그 맛을 안다고, 몇 년 전부터 기도원 집회 시작하면 집회가 끝날 때까지 기도원에 머문다. 누군가는 ‘원래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은 그게 어려웠다. 3~4일 동안 해야 할 일을 못 하니 기도원 가기 전에 일을 미리 다 마치고 가야 했고,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온전히 드려야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다.
그러나 그런 것 다 내려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참석하면서부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 영성이 회복되고, 첫사랑을 되찾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고, 내가 할 수 없었던 막혔던 일들이 하나둘 풀려나가는 것이 마치 꿈꾸는 것 같았다. 한번 생각해보자. 자녀가 부모님을 찾아와서 춤추고 찬양하고 재롱도 피우며 이것저것 기도하며 달라고 떼를 쓴다. 하루 이틀 있다가 갈 줄 알았더니 끝까지 가지도 않는다. 자기 일 다 내려놓고 시간과 돈 쓰면서 온 거 아는데도 그런다. 부모가

들어줄 힘이 있다면 그 소원하는 것을 어찌 이뤄주지 않겠는가.
5월 첫주에 기도원 집회가 있다. 이 잔치에 함께 참석하자. 멋진 사업을, 멋진 가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잔치에 빠지는 실수를 하지 말자. 문제를 풀기 위해 공공대며 혼자 애쓰는 것보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일하시는 게 훨씬 빠르고 완벽하다.
장명훈 집사
jjoshua@hanmail.net